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미국 경제]

- WSJ: 5월 소매 판매, 전월에 비해 0.1%만 상승
- Bloomberg: 미국 산업 생산량 크게 상승
- Bloomberg: 뉴욕연준총재, “미 경제 강하지만 금리 인하는 더 많은 지표 지켜봐야”
- CNBC: 미국인 구매력 상승... 인플레이 완화와 고용 개선으로

#### [금융]

- Bloomberg: 미 소매 판매 약세 상황에서 국채 수익률 하락
- WSJ: 중앙은행들 올해 달려보다는 금 매입 기대

#### [주택]

- WSJ: 임대료 상승이 인플레이에 위협

#### [유가]

- CNBC: 미국 원유, 80달러 선 넘게 유지

#### [미중 경제]

- WSJ: 바이든의 대중국 강경 정책, 재생 에너지 발전에 걸림돌

####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WSJ: 전기차 스타트업 Fisker, 첫 모델 출시 1년 만에 파산 신청
- Bloomberg: 베스트 바이, MS AI 컴퓨터 판매 앞두고 대규모 직원 교육
- CNN Business: 맥도날드, IBM과 협력한 AI 주문 시스템 중단 결정

####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 [미국 경제]

#### WSJ: U.S. Retail Sales Rise Less Than Expected in May

#### 5월 소매 판매, 전월에 비해 0.1%만 상승

- 지난 5월 미국인 소비자들 소비를 늘렸지만 이코노미스트들이 예상한 만큼은 아니었다. 연방 상무부의 오늘 화요일 발표에 따르면 4월보다 0.1% 상승했다. 전문가 전망치 0.2%보다 낮은 것.
- 자동차를 제외한 소매 판매는 4월에 비해 오히려 0.1% 하락했다.
- 판매가 늘어난 품목은 자동차, 전자제품, 의류였는데 반해 지출이 줄어든 것은 휘발유, 가구, 빌딩 자재, 스포츠 용품으로 나타났다.

- 한편 지난주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당초 예상보다 낮아 투자자들은 강한 고용세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가 둔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 WSJ 기사

### **Bloomberg: US Industrial Output Rises More Than Forecast in Broad Advance**

#### **미국 산업 생산량 크게 상승**

- 미 5월 산업 생산량이 광범위한 제조 생산량에 힘입어 상승했다.
- 제조, 유틸리티 등 산업 생산은 0.9% 상승해 지난달 상승세와 같았다고 연준은 오늘 화요일 밝혔다. 이같은 상승세는 모든 예상을 뛰어넘는 수치다.
- 제조 생산 역시 소비재에 힘입어 0.9% 상승했다. 4월에는 제조 생산은 조정치로 0.4% 하락했다. 유틸리티 생산량은 1.6% 상승했다.

## Bloomberg 기사

### **Bloomberg: Fed's Williams Says Economy Strong, Needs More Data for Rate Cut**

#### **뉴욕연준총재, “미 경제 강하지만 금리 인하는 더 많은 지표 지켜보아야”**

- John William 뉴욕연준 총재는 “미국 경제는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면서 언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 이와 관련 그는 올해 금리 인하의 타이밍과 정도를 결정하려면 향후 경제 지표들에 의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인플레이 지표는 고무적이며 물가 압력이 둔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그는 말했다.
- 그는 “공급과 수요 지표가 균형을 맞추는 좋은 신호를 보이고 있고 디스플레이션 과정이 보여진다”며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 인플레이가 둔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용은 둔화되는 측면이 있지만 미국 경제와 노동 시장이 강하다고 언급했다.

## Bloomberg 기사

### **CNBC: American households have seen their purchasing power increase**

#### **미국인 구매력 상승... 인플레이 완화와 고용 개선으로**

- 인플레이션 하락과 고용 시장 호조로 인해 미국인들의 구매력이 지난 1년 동안 상승했다.

- 미국 노동통계국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5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민간 부문의 평균 근로자의 실질 시간당 수입은 0.8% 증가했다. 이는 인플레이션을 제외한 순수한 임금 증가율로, 민간 부문의 평균 근로자는 소비재 및 서비스 가격 상승을 고려한 후에도 임금이 증가하여 현재 월급으로 1년 전보다 더 많은 것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 2023년 5월 이후 연간 실질 소득의 증가 추세는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비관리직 평사원의 소득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이는 2021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인플레이션이 급등하여 평균 근로자의 급여 증가율을 넘어섰던 시기에서 반전된 것이다.

CNBC 기사

**[금융]****Bloomberg: Treasury Yields Slide as Weak Retail Sales Show Fragile Consumer****미 소매 판매 약세 상황에서 국채 수익률 하락**

- 오늘 발표된 미 소매 판매 약세 지표가 연준이 금년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키우면서 미 국채 시장이 랠리를 보이고 있다.
- 국채 수익률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년물의 경우 6베이시스 포인트 감소한 4.70%로 거래되고 있다. 지난주 최저치는 4.65%였다. 시장이 암시하는 연준의 9월 0.25% 금리 인하는 65% 가능성으로 올라갔다. 11월에 금리 인하는 시장에 완전히 반영됐으며 금년 말까지 금리 인하폭은 0.46%라는 것.
- 한편 골드만삭스 자산운용 멀티섹서 채권 투자 책임자인 Lindsay Rosner는 이번 소매 판매 약세 현상에 대해 “소비자가 지출을 줄이고 있지만 여전히 소비하고 있다”고 해석하면서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WSJ: Central Banks Expect to Snap Up More Gold This Year Amid Dollar Pessimism****중앙은행들 올해 달러보다는 금 매입 기대**

- 달러에 대한 비관론이 늘어나는 가운데 전세계 중앙은행들이 달러 매입을 늘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세계금위원회(World Gold Council)에 따르면 응답자 5명 중에 4명은 금 보유 관리자의 글로벌 금 보유 증가세가 늘어날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관련 매년 설문조사가 이루어진 이래 최고 수준의 금 보유 기대 답변이다.

- 구체적으로 선진국 중앙은행들의 13%를 포함해서 내년에 자체 금 보유를 늘리려는 중앙은행들은 거의 30%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에 선진국의 경우 글로벌 보유 외환 중에 금 점유를 전망에 대한 비관적인 생각이 늘고 있다. 즉, 금 보유 점유율이 감소할 것이라는 비율이 작년의 응답자 46%에서 56%로 늘어났다. 이머징 마켓 중앙은행들의 3분의 2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WSJ 기사

**[주택]****WSJ: Rent Hikes Loom, Posing Threat to Inflation Fight**  
**임대료 상승이 인플레이에 위협**

- 캔자스 시티 등 동북부와 중서부 도시들의 임대료가 올해 상승하고 있다.
- 임대 수요가 반등하고 있는데 특히 강력한 일자리 증가로 인해 임대 주인이 임대료를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것이다. 가격 결정권이 집주인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다.
- 임대료 인상은 인플레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연준의 금리 인하에 도전을 줄 수 있다. 연방 노동부 데이터에 따르면 인플레이가 지난달에 예상보다 둔화되었지만 더 많은 아파트 주인들이 임대료를 인상할 가능성이 일부 지역의 임대료 하락을 상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WSJ 기사

**[유가]****CNBC: U.S. crude oil holds above \$80 per barrel after starting week with strong gains**  
**미국 원유, 80달러 선 넘게 유지**

- 미국 원유 가격이 한 주를 강세로 시작하며 화요일에도 배럴당 80달러 이상을 유지했다.
-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 선물은 월요일에 2% 이상 상승했다. 7월 선물은 80달러 29센트로 올해 들어 12% 상승했다. 이는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의 경제 지표가 혼조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세를 이어간 결과이다.
- 어제 중국의 5월 소매판매는 이코노미스트들의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산업생산과 고정자산 투자는 실망스러운 수치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상승했으며, 미즈호 증권 에너지 선물 담당 증권 이사 Bob

Yawger는 투기꾼들이 매도한 원유를 다시 사들이면서 가격이 올랐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CNBC 기사

### [미중 경제]

#### **WSJ: Biden's Tough-on-China Stance Threatens Green America Push** 바이든의 대중국 강경 정책, 재생 에너지 발전에 걸림돌

- 바이든 행정부는 대선을 앞두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산 청정에너지 수입에 대한 장벽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무역 제한은 바이든 대통령의 또 다른 우선순위인 재생 에너지 발전을 위협하고 있다.
- 이번 달, 행정부는 2년 전 보류되었던 중국산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관세를 다시 부과했다. 또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일부 미국 태양광 제조업체들이 지지한 반덤핑 청원을 처음으로 승인했다. 앞으로 몇 주 안에 정부는 태양광 패널을 면세로 들여오는 관세 허점들을 끊어낼 것으로 예상된다.
- 이러한 조치는 배터리와 전기 자동차 등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과 함께 중국산 제품이 과잉으로부터 미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시도이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수입 태양광 부품에 의존하고 있어, 업계 경영진들은 이로 인해 개발자들이 패널 구매를 중단하고 작업 일정을 미루며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재생 에너지 목표 달성에 필요한 빠른 도입을 위협할 수 있다.

WSJ 기사

###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WSJ: Electric-Vehicle Startup Fisker Files for Bankruptcy** 전기차 스타트업 Fisker, 첫 모델 출시 1년 만에 파산 신청

- 전기 자동차 스타트업 Fisker가 첫 모델을 출시한 지 약 1년 만에 파산 신청을 했다.
-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 7년 동안 운영되었으며, 제조를 아웃소싱하여 더 저렴하고 빠르게 시장에 진입하려 했으나 상장 기업 운영의 복잡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WSJ 기사

#### **Bloomberg: Best Buy Trains 30,000 for Microsoft's AI Laptops Launch**

## 베스트 바이, MS AI 컴퓨터 판매 앞두고 대규모 직원 교육

- 베스트 바이는 올해 가장 큰 제품 출시 중 하나로 Microsoft의 인공지능(AI) 노트북인 Copilot+ PC를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화요일부터 수만 명의 직원을 교육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의 범위 및 직원 수에서 10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이다.
- 베스트 바이는 Microsoft와 Qualcomm Inc. 와 협력하여 지금까지 3만명 이상의 직원을 교육하고 있으며, 교육 자료도 계속 업데이트 중이다. 이 소매업체는 Copilot+ PC 모델 중 40% 이상, 특히 OLED Surface Pro 모델에 대해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다.
- 이러한 노력으로 베스트 바이의 주가는 화요일 오전 8시 26분 뉴욕 개장 전 거래에서 0.8% 상승했으며, 월요일 증가 기준으로 올해 들어 거의 17% 상승했다.

Bloomberg 기사

## CNN Business: McDonald's pulls AI ordering from drive-thrus — for now 맥도날드, IBM과 협력한 AI 주문 시스템 중단 결정

- 맥도날드는 미국 내 100개 이상의 레스토랑에서 테스트하던 인공지능(AI) 주문 기술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패스트푸드 업계에 AI 도입이 지연될 수 있다.
- 맥도날드는 IBM과 협력하여 일부 레스토랑에서 AI 기반 음성 자동 주문 시스템을 개발하고 테스트했지만, 늦어도 2024년 7월 26일까지 이 기술을 중단할 계획이다. 경쟁사들이 비슷한 투자를 연구하고 있지만, 맥도날드는 여전히 AI 관련 솔루션을 연구 중이라고 답변했다.
- 맥도날드는 가맹점에 보낸 이메일에서 IBM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여겨 글로벌 시스템 전반에 걸쳐 IBM의 제품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다른 AI 파트너도 검토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CNN Business 기사

## "골드만, 美 연내 2회 금리인하 전망 고수..."고용 변곡점"

### 9월과 12월 예상...최근 경기둔화 당분간 지속될 듯

골드만삭스는 미국 노동시장이 변곡점에 서 있다면서 연내 2차례 금리인하 전망을 유지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17일(현지시간) 고객에게 보낸 메모에서 미국 노동시장에서 노동 수요가 추가로 약화할 경우 구인뿐 아니라 현재 일자리 자체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변곡점'에 서 있다고 분석했다.

골드만삭스는 이에 대해 비노동 부문 고용이 최근 몇 주간 신규 및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증가와 대조되는 등 현재 노동 수요의 강도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